

“중생들 마음에 위안되는 노래 부르고 싶어”

데스크 초대석
5번째 앨범 낸 도신 스님



“도신이 노래한대요.”(중광 스님)
“이놈아! 그리 말렸건만 또 노래를 한다고, 한국 불교의 선종을 크게 불러일으킨 경허, 만공, 수월, 혜월 선사들이 어찌 별자...”(법장 스님)
아마도 도신(조계종 포교연구실장·사진)이 5집 앨범을 냈다고 하면 두 은사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법하다고 도신 스님을 비롯한 주변에선 귀뜸한다. 이번 음반은 1991년 ‘도신의 국악가요’를 발표한 이래 ‘용서 그리고 구도’(1993) ‘도신의 국악가요3’(1997) ‘세상속으로’(2003)에 이어 다섯 번째다. 하지만 스님의 예술적 ‘끼’를 대하는 세상의 시선에는 여전히 편견이 있다. 그래도 “먼저 마음을 열고 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도신 스님의 의지는 굳건하기만 하다.

-이번 앨범의 자켓이 중광 스님의 글씨와 그림인데, 그 스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요.
“길례 중광”(1935-2002)스님과의 인연은 각별했습니다. 스님에게 흔가(魂歌) 즉 흔이 실린 노래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첫 인연은 1979년 즈음으로 기억됩니다. 수덕사 잔디밭에서 ‘한오백년’을 부르고 있는데 거기같은 스님이 오셔서 노래를 청하더라고요. 스님은 노래를 들더니 “자네는 목탁보다 기타가 어울리는 사람일세, 함께 서울로 가자”고 하시길래 그 길로 따라나섰습니다. 이후 서울 동대문 등지의 절에서 10년 이상 중광 스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스님이 노래를 처음 시작할 80년대 초반 해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노래를 부르기까지는 끝없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은사이자 아버지 같은 법장 스님은 노래할 때마다 불호령을 내렸지요. 기타를 수십 개도 넘게 때려 부수며 크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때로는 종단 스님들에게 불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서울 대학로 쪽에서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스님을 네댓 명이 오더니 끌고 가서 때리더라고요. 종이 기타치고 길거리에서 노래 부른다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만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음악적 스승은 누구인가요, 누구에게 기타를 처음 배웠습니까?
“스님이 노래를 처음 시작할 80년대 초반 해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였던 신중현씨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기타를 가르쳐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또한 그를 ‘사랑과 평화’의 베이스 주자였던 이남이 씨를 만나려고 이태원 밤무대도 무작정 찾았지요. 스님이라 그런지 거부감 없이 두 분 다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때 기타기법과 리듬을 탄탄하게 배운

것이 지금까지 음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외에도 불교음악가 이교숙 선생에게는 작곡법을 사사했습니다.

-대중가요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좋아하는 곡과 가수가 있으신가요?
“스님이 노래를 처음 시작할 80년대 초반 해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에 대중가요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입니다. 토해내는 듯한 목소리가 일단 좋습니다. 있는 살림살이를 다 내놓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외에도 임재범, 박효신 등 젊은 가수들도 좋아합니다.

-한동안 공연무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무대에 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웃음) 그동안 ‘부모은중상’ 등 큰 무대에는 많이 섰지만 저는 단독 공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로 위문 공연과 거리 콘서트를 많이 했습니다. 산사 음악회도 많이 불렀지요. 아마 단독 공연을 하질 않아 무대에서 볼 수 없었다고들 생각하는데 사찰 행사에는 지금도 가끔 나갑니다. 제 노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지 가서 마이크를 잡을 생각입니다.

-이번 5집 음반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일단 주제는 ‘아름 그리고 해탈’입니다. ‘아버

그 슬픔과 애환을 담은 것입니다. 스승이자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회한이 밀물처럼 들어 왔던 그 당시의 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님의 향기’도 법장 스님이 생전에 좋아하며 가끔 흥얼거렸던 곡이라 애착이 갑니다.

이번 앨범 판매 수익은 충남 서산 서광사 성역화 불사와 심장병 환우 후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성역화 불사는 법장 스님의 평생 원중도 하나였고, 심장병 환우 후원은 법장 스님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인연 때문입니다.

-스님의 노래가 듣는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졌으면 합니까?
국악가요이지만 이번 곡 대부분은 불교적 정서가 함축돼 있습니다. 몇몇 곡들은 수행자로서 설불리 건드리기 어려운 외로움을 담은 곡들도 있습니다. 이번 음반에 담긴 노래들이 듣는 이들에게 좋은 생각을 주고 정서에도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또한 삶속에서 외로움과 아픔이 찾아들 때 조그만 위안이 됐으면 좋

“주변 반대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 변함없어” 앨범 판매 수익은 서광사 불사·심장병 환우 후원

지’를 비롯해 ‘홀로 앓는 영혼이여’ ‘흔적’ ‘구름이 되어’ ‘귀거래사’ 등 10곡의 국악가요가 수록돼 있습니다. ‘홀로 앓는 영혼이여’ 등 6곡은 자작곡입니다.

특히 ‘홀로 앓는 영혼이여’는 도반인 흥법 스님의 노트에서 본 내용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흥법 스님은 “그런 바람소리나 다름없는 냇두리에 불과한데 왜 적느냐”며 의아해 했는데 흥법의 발판에 버려져 있는 내 자신의 실체를 보는 듯 해 곡을 붙여봤습니다. 또한 ‘귀거래사’는 김신우씨가 불렀던 곡을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제 노래 대부분은 국악가요들인데 이는 첫 공연(1990년)을 국악그룹 슬기동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국악가요를 부른 것이 계기가 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음반중 가장 애착가는 노래를 꼽으라면?
첫 번째 곡인 ‘아버지’입니다. 8살 때(1969년) 수덕사에 들어가 법장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속가의 ‘아버지’보다 더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법장 스님은 출가 수행자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신 분이

며, 부처님과도 불원을 상징하는 계(1976년)를 내려 주신 은사이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법장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했습니다.
큰 바다에는 절대 고요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음의 동요가 있지요. 종교에 상관없이 내 노래를 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편안한 마음의 동요가 일었던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앨범에는 명상을 악을 테마로 꾸며보고 싶습니다.

한 중생이라도 마음속에 고통이 남아 있는 한 나의 노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글=김주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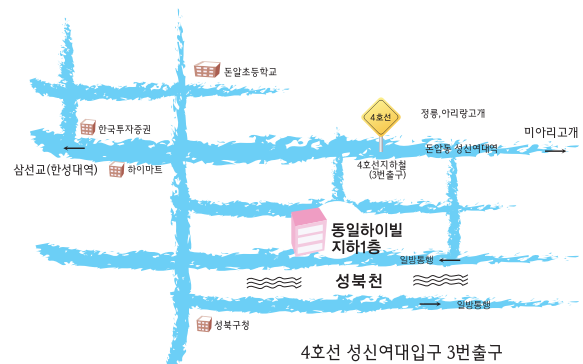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가 새롭게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으로 이에 사업장을 옮기어 오는 10월 22일부터 새로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창업이래 저희를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 덕분이며, 또한 출판업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도움에 따른 것이라 사료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운주사는 이번 확장이전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며, 업무에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운주사 대표 임희근



변경주소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 하이빌 지하 1층
전화번호 | 02)3672-7181~4
팩스번호 | 02)3672-7186, 7188
*전화 및 팩스번호는 기존과 동일

